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대구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이영재 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	보도자료 2020. 6. 30.(화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	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고보조 연구개발사업 관련 입찰 비리 사건 수사 결과
------------	-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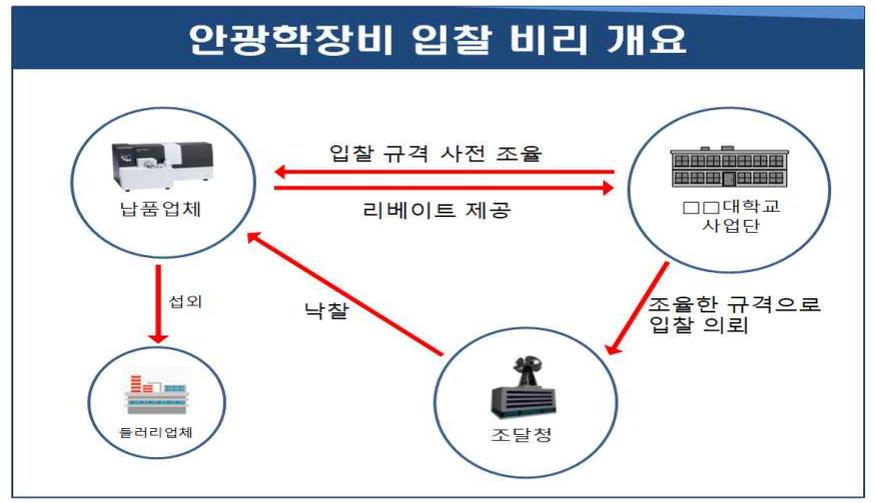
●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(부장검사 고흥곤)는 2019. 10. ~ 2020. 6. 경산시 소재 □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안광학융합기술사업 관련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,

- ㉠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내정하고 제품 규격과 가격을 협의한 후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도록 도와주고, 해당 업체로부터 **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사업단 총괄본부장과 연구원**,
- ㉡ 위와 같이 사업단과 제품의 규격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가고,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**납품업체 대표, 직원**
- ㉢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여 사전 조율한 금액대로 투찰한 **업체 대표** 등 **총 25명을 입건하여 3명을 구속 기소, 2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**

※ 본건 사업은 □□대학교가 2015. 7. 산업통상자원부의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진행되었고, 산업자원통상부가 80%,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20%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규모는 총 83억 원에 이릅니다.

1 주요 공소사실 요지 ※상세 내용은 별지 참조

- A○○(50세, 사업단 총괄본부장, 구속)
 - 2016. 2. ~ 2018. 10.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D○○ 등으로부터 **합계 2,970만 원 상당 금품 등 수수 [배임수재]**
 - 2016. 2. ~ 2019. 6. D○○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사전 협의하고 이들과 규격을 조율한 후 입찰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21회(낙찰금액 합계 16억 원 상당)에 걸쳐 조달청 등의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함 **[입찰방해]**
- B○○(45세, 사업단 선임 연구원, 구속)
 - 2016. 12. ~ 2017. 2.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H○○ 등으로부터 **합계 5,600만 원 상당 금품 등 수수 [배임수재]**
 - 2016. 10. ~ 2019. 5. H○○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사전 협의하고 이들과 규격을 조율한 후 입찰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19회(낙찰금액 합계 13억 원 상당)에 걸쳐 조달청 등의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함 **[입찰방해]**
- C○○(50세, 대구 소재 'ㄱ' 대표, 구속)
 - 2016. 10. ~ 2019. 4. 위 사업단에 납품을 하기로 A○○와 사전 협의한 후 조달청 등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**합계 9억 4,000만 원(12회)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음 [입찰방해]**



2 주요 수사 및 재판 경과

- 2019. 10. 28. □□대학교 사업단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2019. 12. 31. C○○ 구속 기소
- 2020. 1. 30. A○○·B○○ 구속 기소, D○○·E○○ 불구속 기소
- 2020. 4. 28. C○○ 1심 유죄 선고
 - ※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, 추징 1억 2,000만 원 선고
- 2020. 6. 30. H○○, I○○, J○○ 불구속 기소

3 참고 사항

1 국고보조금 지원 연구개발사업에서의 구조적 비리 확인

- 안광학 장비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아 규격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해 쉽게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하고, 그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함
- 납품업체는 사업단과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을 부풀리고 실제 입찰에서는 입찰 예정가격의 98~99%에 이르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감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취득하였고, 이러한 이익의 일부를 사업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

※ 경쟁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, 입찰 예정가격의 76% 정도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짐

2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적극 실시

- 위 사업단 총괄본부장, 연구원과 납품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 중인 2억 5,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, 차량 등에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 진행 중임

별지

【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】

순번	피고인	직 위	공소사실 요지	처 분
1	A○○ (50세)	□□대학교 사업단 총괄본부장	- 2016. 2. ~ 2018. 10.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D○○ 등으로부터 합계 2,970만 원 상당 금품 등 수수 [배임수재] - 2016. 2. ~ 2019. 6. D○○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사전 협의하고 입찰을 의뢰하여 21회(합계 16억 원 상당)에 걸쳐 조달청 등의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함 [입찰방해]	2020. 1. 30. 구속 기소
2	B○○ (45세)	□□대학교 사업단 선임 연구원	- 2016. 12. ~ 2017. 2.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H○○ 등으로부터 합계 5,600만 원 상당 금품 등 수수 [배임수재] - 2016. 10. ~ 2019. 5. H○○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사전 협의하고 입찰을 의뢰하여 19회(합계 13억 원 상당)에 걸쳐 조달청 등의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함 [입찰방해]	※ B○○는 6. 23. 추가 기소
3	C○○ (50세)	'ㄱ' 대표	- 2016. 10. ~ 2019. 4. A○○와 사전 협의한 후 조달청 등 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합계 9억 4,000만 원(12회)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음 [입찰방해]	2019. 12. 31. 구속 기소
4	D○○ (51세)	'ㄴ' 대표	- 2018. 4. ~ 2019. 3. A○○와 사전 협의한 후 조달청 등 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합계 1억 1,600만 원(3회)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음 [입찰방해] - 2018. 8. ~ 10.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A○○에게 현금 2,000만 원 교부 [배임증재]	2020. 1. 30. 불구속 기소
5	E○○ (48세)	'ㄷ' 대표	- 2018. 4. ~ 2019. 6. A○○와 사전 협의한 후 조달청 등 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합계 3억 4,500만 원(7회)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음 [입찰방해]	
6	F○○ (62세)	'ㄹ' 대표	- 2018. 4. ~ 2019. 6. E○○와 공모하여 조달청 등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합계 2억 8,400만 원(6회)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음 [입찰방해]	2019. 12. 31. 불구속 기소
7	G○○ (48세)	'ㄴ' 대표	- 2018. 4. ~ 2018. 8. D○○와 공모하여 조달청 등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합계 9,300만 원 (2회)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음 [입찰방해]	
8	H○○ (44세)	'바' 대구사무소 영업차장	- 2017. 8. B○○와 사전 협의한 후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합계 3억 1,650만 원(4회)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음 [입찰방해]	
9	I○○ (46세)	'바' 대구사무소 영업팀장	- 2017. 5. 낙찰자 선정 등 청탁 명목으로 B○○에게 현금 2,000만원 교부 [배임증재]	2020. 6. 30. 불구속 기소
10	J○○ (41세)	'사' 대표	- 2017. 8. I○○ 등과 공모하여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 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합계 3억 1,650만 원(4회)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음 [입찰방해]	

※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 대표 등 15명도 약식명령 청구